

Wundt와 心理檢査

田 溶 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心理檢査의 면에서 관련되는 몇가지를 논술한다. Wundt가 그의 實驗室에서 研究한 것이 주로 生理學과 物理學을 背景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人間의 感覺을 物理的 刺戟과의 乘數關係로 밝히려고 했다. 人間의 一般的 記述의 形成이었다 할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가지 면에서 “인간은 이렇다”라는 말을 하려고 여러가지를 測定하였다. 一例로 그는 視覺, 聽覺, 其他 感覺을 일으키게 한 後에 反應時間을 研究하였다. “人間의 視·知覺의 反應速度는 몇分의 1秒다”라는 一般화된 法則을 만들었다. 즉 그에 있어서는 單·性(uniformity)이 위주였지 行動이 다른 사람을 注意하지 않았다. 그는 心理學을 엄밀하게 nomothetic한 科學으로 굳게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反應速度에는 사람마다 多少의 差異가 있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다. 이런 差異는 一般法則을 흐릿하게 하는 즉 一般法則의 形成에 害을 주는 必要惡으로 處理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몇分의 1秒로 反應하는데, 多少의 個人差가 있다”라고 고쳐져야 한다. 一般的 言明의 正確性을 害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誤差(error)라는 말을 썼다.

같은 연구실에 있던 美國 留學生인 James

McKeen Cattell은 이 個人差를 물고 늘어졌다. 그의 博士學位 論文의 題目은 “反應時間에 있어서의 個人差”였다. 스승 Wundt가 惡이라 보는 個人差를 正式으로 다루었다. 그가 원래 우수한 學者였기 때문인지 Wundt가 外國學生이니까보아 주었기 때문인지 博士學位를 획득하고 歸國하여 그 나머지 生涯를 “心理學實驗室”을 만드는 것과 “檢査運動”을 일으키는 일에 從事하였다. 그에 의하여 mental test라는 用語가 최초의 문헌에 나타났다. 근육의 強度, 運動速度, 痛覺의 銳敏度, 視覺銳敏度, 反應速度, 記憶(오새의 短期記憶)을 재는 것이 그의 mental test다.

檢査運動은 後에 Alfred Binet에 이르러 180도의 轉換을 하여 判斷, 理解, 推理等 거치른 概念을 거칠게 測定하는 즉 精密性을 희생하고 나서라도, 粗雜하더라도 좋으니 그런 概念을 정말로 다루는 것이 더 重要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檢査의 信賴度보다 妥當度가 더 重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은 重要한 일이다. 個人的 知能檢査는 Binet-Simon尺度로 이어져 오늘날 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檢査狀況의 整備, 指示의 同一性 등 여전히 實驗室的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檢査라 하면 個性을 追求하는

idiosyncratic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檢査結果中 中間程度인 사람 또는 領域은 無視해 버리고 極端的인 사람 또는 領域만을 문제로 삼았다. 그런 것이라야 그 사람 獨特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nomothetic한 것과 idiosyncratic한 接近을 相反하는 것이 아니라 相補的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치 實驗 對 臨床, 原子論的 對 全體的, 精神測定學的 對 印象主義等, 이런 現象은 얼마든지 있다. “人間은 몇분의 1秒에 反應하는데, 그 標準偏差(誤差의 概念을 이렇게 標示한다면)는 몇분의 1秒다”라고 말한다면 一般的 通則으로서도 正確할 뿐 아니라 個人的 實

績을 解釋하는 데에도 適當하다고 본다.

“사람은 대개 이렇다, 거기에 標準偏差는 저렇다”라는 것을 一般化한다면 많은 誤解를 덜 수가 있을 것이다. 가령 “사람은 대개 正直한 편이다, 거기에 標準偏差로는 이런 程度다”라고 한다면 特定한 惡人의 惡人다운 程度를 알 수 있고 따라서 善導하는데 더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盜跖같은 極惡人인지 어찌다 실수해서 그랬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Wundt의 nomothetic한 接近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거기에다 더 標準偏差를 提示하는 idiosyncratic한 接近도 계속되어야 人間을 정말로 理解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